

시선

사설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따라 낮아지는 교육 만족도

4월 30일 발표된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서 2015년 1학기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지난해 대비 불과 0.6%p가 개선된 48.9%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경쟁대학인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에 비해 10%p 가량 낮은 수치다. 사실 가장 이상적인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어느 선인지에 대한 절대적 기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각종 대학 평가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기에 이 문제는 종종 평가 지표 관리자원에서 다뤄지곤 한다. 하지만, 우리가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문제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읽어야 하는 것은 평가지표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만족도'와 연관된 문제다.

2008년 이후로 우리 대학은 해마다 많은 수의 전임교원을 총원하며 이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해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지속적으로 50%를 밟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현상은 비전임교원 강의비율이 높은 후마니타스 칼리지 개설강좌가 2014학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

자못 이해하기 힘든 이 현상은 우리학교가 2008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해온 '전임교원 책임시수 조정 정책'에서 기인한다. 우리학교의 전임교원 연간 책임시수는 지난 2008년에 18시수에서 15시수로, 2011년에 다시 15시수에서 12시수로 두 번에 걸쳐 축소돼왔다. 당시 대학평가에서 교수 연구실적이 전체 평가 순위를 좌우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바, 교수의 강의 부담을 줄여 연구 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단적으로 말하자면, '전임교원 책임시수 조정 정책'은 대학의 두 기반인 '교육'과 '연구' 중 그 어느 분야에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실제로 대학 측이 지난 해 2월 내놓은 '대학 행정·재정 발전 특별위원회 연구결과보고서'는 '책임시수 축소에도 연구성과가 미비'하고 '비전임교원 강좌 증가로 학생의 강의 만족도가 저하'되었다고 자체 진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학 측은 스스로 벌여놓은 일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위 '보고서' 대로라면 이번 2015학년도에는 책임시수가 상향 조정되었어야 하지만, 그런 소식은 그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교수사회는 책임시수 상향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결국, 머뭇거리는 대학과 강경한 전임교원 사이에서 피해만 보고 있는 것은 교육의 수혜자여야 할 학생들뿐이다. 지난 해 국가고객만족도지수(NCSI)조사에서 우리학교의 만족도가 예년 대비 3계단 하락한 5위까지 추락한 것은, 지난 수년간 질적으로 저하된 교육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누적되는 학생들의 불만족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학교로 되돌아간다는 점을, 대학과 교수사회는 인지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학생사회와의 교육 불만족도는 계속 높아질 것이고, 이는 결국 여론화되면서 대학 바깥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후로 그 어떤 우수 학생이 우리학교를 지망하게 될 것인가?

이제는 대학과 교수사회가,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대안을 밝혀야 할 시점이다.



이주의 주제 - 총여학생회 존폐 대자보 논란

“제가 그런걸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민교기자
mingyo@khu.ac.kr

력한 것은 “아니, 폴펜(꼴통 페미니스트)으로 몰리게 그런걸 어떻게 이야기해요”라는 걱정이라고 본다. 여학생으로서 여학생조직을 논하는 순간부터 특정 이념, 논리, 진영으로 몰릴 수 있다는 두려움말이다. 그 앞에서, 침묵은 가장 편리한 선택지였을 것이다.

현재 쟁점은 몇가지로 좁혀볼 수 있다. ‘총여는 무엇을 위한 조직인가?’, ‘우리학교에서 이런 총여는 필요한가?’, ‘총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자치회비나 운영정책 등 시스템 상 문제는 없는가?’, ‘총여를 성평등위원회와 같은 기구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은가?’ 정도다.

그리고 현재 이 질문에 대해 내걸리는 저마다의 ‘답변’들은 너무나 쉽사리 진영논리나 차별적 언사로 물리고 있다. 논쟁에 ‘감정’이 뒤섞이면서 벌어지는 풍경이다. 그 와중에 ‘몰리는 것’을 두려워 하는 많은 ‘입장들’은 침묵 뒤로 숨어들고, 결국 이 논의는 몇 해 째 되풀이되어 온 지난한 이야기를 다시금 반복할 뿐이다.

〈민상토론〉에서 사회자는 “본코너는 개그콘서트 조준희PD와는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말한다. 이 대사는 코미디마저 정치문제로 비화시키는 정부에 대한 풍자인 셈이다. 재밌다. 하지만 이에 빗대 “이 칼럼은 대학주보와는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쓸수는, 아마 없을 것이다. 대자보, 또 공개된 공간은 감정에 기반해 누군가를 몰고 몰리는 곳이 아니라, 합리적 이성에 기반해 서로의 논리를 교류하는 장이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총여가 대자보를 붙이기 전까지의 모든 대자보는 남학생이 게재했다는 것이다. 총여가 여학생 대표조직이고, 이 논쟁의 핵심이 여학생과 남학생 사이의 ‘성차별’ 논란임에도 유독 여학생은 침묵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가장 유

서울캠 2차 확대운영위원회

1학기 자치회비 결정

미디어 여론동향 2015. 4. 13 ~ 5. 3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서울】 지난 27일 개최된 제2차 확대운영위원회(학운위)에서 1학기 자치회비 분배가 결정됐다.(1학기 자치회비 분배 결정 - 학생 1인당 총학 2,650원, 단과대학 학생회 3,300원/대학주보 온라인, 2015.4.28) 1학기 자치회비 분배 안건은 지난 전학대회에서도 상정됐지만, 성원 출석율이 저조해 의결하지 못했던 바 있다. 이번 학운위에는 전체 성원 108명 중 62명이 참석했으며, 보고안건과 심의 및 의결안건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핵심안건이었던 자치회비 분배는 전년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학생 1인당 자치회비 9,500원 중 총학생회 2,650원, 단과대학

학생회 3,300원, 특별기구 3,550원을 각각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특별기구 중 고학년집위원회는 기준의 예산배정액 800원에서 50원 줄은 750원을 분배 받는 것으로 조정됐다. 후마니타스 칼리지 대학생위원회는 200원에서 250원으로 자치회비 분배额度이 늘었다.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출신 김세중 동문이 프로농구 선수로는 처음 교수가 됐다.(인천 전자랜드 출신 김세중, 프로농구 선수 최초로 교수 임용/국민일보, 2015.4.29) 김 동문은 지난 3월 1일자로 경북 구미의 경문대 사회체육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김 동문은 2002년 우리학교를 졸업한 뒤 신인 전체 15순위로 인천 SK(현 인천 전자랜드)에 입단후 5시즌을 뛰었다. 선수생활과 공부를 병행한 김 동문은 2007년 석사학위를 땄고, 은퇴 후 2011년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전자·전파공학과 김선국 교수 연구팀이 전자회로의 기본부품인 트랜지스터의 광반응 성능을 증폭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지난 30일 밝

혔다.(경희대 연구팀, ‘트랜지스터 광증폭 기술’ 개발/뉴스1, 2015.4.30) 이번 연구결과는 신소재 분야 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 4월 1일자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 전자기기의 성능과 직결된 트랜지스터는 전기신호를 증폭시키거나 전류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하는데, 광반응 성능이 우수할수록 성능도 향상된다. 연구팀은 높은 전자이동도와 유연성을 가진 다층 이황화몰리브덴 기반의 박막 트랜지스터를 이용해 기준보다 광효율을 약 1,000배 향상시킬 수 있었다. 특히 이를 투명하고 휘어지는 터치스크린에 응용할 수 있어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Interactive Display)의 상용화를 한 발 앞당겼다는 평가다. 김 교수는 “인터랙티브 기술이 자연스럽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광트랜지스터의 효율이 좋아야 한다”며 “광반응 성능을 증폭시킨 이번 연구결과를 활용하면 인터랙티브 기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국민대 교수와 윤영기 캐나다 워털루대 교수와 함께 참여한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헬스케어 원천기술과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아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인격과 가치관이 녹아있다.

세시봉

백승철 (편집장)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등 우리나라 속담에는 ‘말’과 관련된 것이 많다.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할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최근 개그맨 장동민씨가 과거 자신이 진행하던 팟캐스트 방송에서 했던 막말로 인해 구설수에 올랐다. ‘여자들은 멍청해서 남자한테 안돼’, ‘참을 수 없는 건 처녀가 아닌 여자’ 등 여성비하 및 거친 표현으로 여론의 뜻매를 맞았다. 결국 출연하고 있던 ‘무한도전’ 식스맨 프로젝트에서 자진하차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다.

‘말’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이유는 ‘말’에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과 사고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별 생각 없이 무심코 한 말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마련이다. 개그맨 장동민의 막말논란과 관해 ‘나쁜 뜻도 아니고 웃기려고 한 말인데 뭐가 그렇게 심각하게 구나?’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웃기려고 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 아무리 말을 하는 의도나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상대방이 기분 나빴다면 사과를 하는 게 맞다. 말은 하는 사람 입장에서가 아니라 듣는 사람 입장에서 판단해야 옳다.

이렇듯 말이란 것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다. 말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부터는 ‘나’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한번 뱉은 말은 쉽사리 주워 담을 수도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하는 말은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혜정박물관 김혜정 관장이 감사행정원 직원에게 폭언을 한 것이 노동조합(노조)의 성명서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성명서를 통해 양측간의 ‘설전’이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혜정박물관 김혜정 관장은 이승한 부총장을 통해 폭언을 했던 해당 직원에게 사과의 뜻을 표했다고 한다. 해당 직원과 노동조합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한다. 당사자를 직접 만나 사과를 했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간접적인 형식으로 나마 유감의 뜻을 표하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감사행정원도 예정대로 절차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고 혜정박물관도 감사절차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노동조합과 혜정박물관 사이에 있던 ‘폭언’ 논란이 수습되는 모양새다.

사람들이 문제를 느끼는 것은 ‘폭언’이라는 행위 그 자체도 잘못됐지만 김 관장이 한 ‘폭언’ 속에는 김 관장이 가진 가치관이 반영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노조는 양 캠퍼스 학부, 대학원 총학생회와 교직원, 교수의회도 참여하는 ‘존중문화협의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내에 따뜻한 배려와 이해의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진 | 편집장 백승철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 02-441-7317(편집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립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대명동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